

노인성 眼질환의 관리대책 ③

백내장



이진학
(서울의대 교수)

(1) 백내장이란 무엇인가?

우리 눈에는 사진기의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가 있는데 이 부분에 혼탁이 와 있는 상태를 백내장이라고 하며 증상은 시력이 떨어지거나 물체가 겹쳐보이게 됩니다.

백내장의 종류에는 선천성 백내장, 합병성 백내장 및 노인성 백내장이 있는데 그중 노인성 백내장이 대부분입니다.

있습니다. 동공이 희게 될 때까지 수술을 안하면 염증이 나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고, 수술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10년전 까지만 해도 수술 방법이 달라서 동공이 희게 되어 소위 백내장이 익을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으나, 요즘은 수술 방법이 달라져 비교적 빨리 수술을 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흐려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대신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로써, 대부분의 경우에 최신 수술 방법인 초음파를 사용한 소절개 수술 방법으로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3) 수술결과 및 예후

수술 결과는 다른 질환에 비해 비교적 좋아서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백내장이 생기기 전에 보셨던 시력을 수술 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수술해도 시력이 잘 안나오게 됩니다.

①백내장이 없었을 때에도 시력이 좋지 않았거나 ②70

세가 100명중 3~4명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망막박리가 발생한 경우는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현재 상태에서 시력 활용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만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안의 차이로 불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양안이 비슷한 근시가 되도록 근시수술을 가진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수술후 가까운 것(신문 등)은 잘 보이지만 멀리 볼때

들어가지 안내염이 되어 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환자분이 아무리 주의하신다 하여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 한달동안은 눈에 손을 대거나 물등 이물질이

연령의 증가로 수정체 혼탁 원인

(4) 마취의 위험성

국소마취(눈 주위만 마취)이므로 마취가 아주 까다롭지는 않으며 안전하지만 드물게는 수술시의 두려움이나 불안등으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거나 맥박의 이상이 발생하여 소위 중풍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병율은 아주 낮아 1000명에 한명 정도이고 그것은 마취 병원오실때 자동차사고가 날 확률과 같아서 이러한 문제로 수술을 기피할 필요는 없으나 연세가 70세 이상일때는 주위가 필요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쇠

맨눈으로는 잘 안보이고 수술전과 같이 근시 안경을 쓰셔야만 잘 보입니다. 다만 환자가 근거리 작업보다는 먼 곳이 잘 보이는 것을 원하실 때는 정상안이 되는 듯수의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여 맨눈으로 멀리까지 잘 보이게 해드릴 수 있으나 가까이 볼때의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40세 이하인 경우는 노안이 오기전이므로 수술받지 않은 반대편 눈은 신문글씨가 잘보이나 수술받은 눈은 신문 글씨가 잘 보이지 않게 되므로 돋보기가 부착된 다중초점 인공수정체를 넣는 경우도 있지만 이 인공수정체는 어두운 곳에서는 정상안 보다 시력이 많이 떨어지므로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이러한 인공수정체를 삽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7) 후발 백내장

후발 백내장은 백내장이 다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공수정체를 넣어 놓은 수정체낭에 혼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나이가 젊거나(40세 이하) 당뇨 등 전신질환 및 다른 안과질환(포도막염)이 있을 경우는 잘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전에는 재 수술을 하였으나 요즘은 레이저 치료로 외래에서 간단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레이저 치료후 안압이 올라가거나 망막에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약물로 치료되지만 망막에 손상이 생겼을 경우는 망막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8) 백내장 약

시중에는 점안약 또는 내복용으로 백내장 약이 나와 있습니다. 한쪽눈만 보이거나 몸이 수술받기에 쇠약하여 수술을 꺼리는 경우나 시력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백내장 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으로 백내장 진행이 느려지거나 어느정도 호전을 가져오기도 하나 모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완전히 백내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몇달간 써보고 효과가 있으면 계속하시고 아니면 중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예후 좋아

노인성 백내장이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수정체가 투명성을 잃어가는 질환으로 50세가 넘으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 백내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심한 시력감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백내장이 있어도 시력이 좋은 사람은 수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시력이 떨어진다하여도 급하게 수술을 요하는 질병은 아닙니다.

(2) 백내장 수술 시기 및 방법

시력이 0.5 이하로 떨어지거나 직업에 따라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면 수술을 권하게 되고, 0.3이하이면 모든 경우에서 수술을 받도록 하고

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 ③다른 질환(당뇨, 고혈압, 포도막염, 초자체 혼탁, 망막박리, 망막변성, 망막출혈, 고도근시, 녹내장, 시신경 위축)이 있는 분은 수술해도 시력 개선이 늦고 또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또한

가. 망막이나 초자체 수술을 받았던 경력이 있던 분이

나. 전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으나 인공수정체를 넣지 않아서 이차로 인공수정체를 넣는 분 또는

다. 망막, 초자체 출혈이 있었던 경우나 고도근시에서 수술 후 맥락막박리, 망막부종, 망막출혈, 또는 망막박

약한 상태에서는 좀 더 기다렸다가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수술전 검사 및 인공수정체 돛수 결정

수술 전에 세밀한 안과 검사를 받고 인공수정체 돛수를 결정합니다. 인공수정체 돛수는 40세 이상인 경우는 정상안을 목표로 한 돛수를 삽입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수술후 먼곳은 잘 보이지만 신문 볼때는 수술전과 마찬가지로 돋보기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양쪽눈에 근시(맨눈으로 가까운 곳은 잘보이나 먼곳이 잘 안보이는 것)과 있었던 분은 수술받는 한쪽 눈을 정상안으로 하면

회원 가입 안내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화, 도시화 식생활의 변화와 더불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成人病(암,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뇌혈관질환, 간경변증, 만성간장염, 비만증)은 사회각계에서 중견으로 활약중인 3~40대에서 주로 발병하여 개인적 불행은 물론 국가적 인력자원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바야흐로 사회적인 중대문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는 成人病의 예방 및 치료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지도계몽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과 복지사회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바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事業

1. 성인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기술개발 보급 및 지도계몽
2. 성인병에 관한 연구조사 및 기술의 평가
3. 성인병에 관한 의약품의 연구개발
4. 성인병진료를 위한 전문의료기관의 설치운영
5. 성인병예방 및 치료에 관한 도서의 출판 및 보급
6.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會員의 자격

1. 正會員 : 협회의 사업에 찬동하고 이에 참여하는 성인병 관계학자 및 전문가 또는 본협회 발전에 공이 있는 자
2. 特別會員 :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협회사업에 자진 참여하는 사업체(自營者포함)의 長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一般會員 :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협회사업에 자진참여하는 성인병에 관심을 가진 자
4. 法人團體會員 : 협회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성인병에 방사업에 자진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

●入會節次

1. 協會사무처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理事會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입회사는 입회비 및 年會費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사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주소 : 서울서초구 서초동 1600-3(대림빌딩 6층)
전화 번호 : 588-1461, 1462